

건설업종

(비중확대/Maintain)

그날이 오면 6 (착공)

- 평양공동선언, 철도와 도로 착공, 경제특구, 환경, 의료분야에서 남북협력
- 남북한 Win Win 가능한 민간투자 확대 전망
- 구체적인 실행에 대한 약속, 착공을 통한 남북경협 실행을 주목

평양공동선언 - 인프라와 경제특구, 환경, 의료분야

9월 19일 평양에서 이루어진 남북 정상회담 이후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특징적인 면은 경제 협력과 비핵화, 군사긴장완화에 관련되어 상세한 내용이 추가된 점이다.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하여 금년 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 또한,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리고 자연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위해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산림분야 협력을 우선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보건, 의료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인프라와 경제특구, 환경, 의료분야가 남북 경협**의 핵심분야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남, 북한의 보완적인 협력관계 주목

향후 남북한 경제협력의 큰 틀은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보완적 협력 관계**가 될 전망이다. 정상회담에서도 남한 주요 민간그룹 경영자가 참석한 이유다. 민간 차원에서 북한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단기적으로 생산기지로의 역할과 장기적으로 내수시장 확보다. 북한이 보유한 양질의 노동력과 지리적 이점을 이용한다면 대한민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북한 또한 남한 민간 투자 확대에 경제성장이 빨라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한민국이 만든 베트남의 변화

한국기업의 북한 투자가 본격화되면 북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한민국 기업투자가 개발 도상국가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는 베트남에서 찾을 수 있다. 최근 베트남의 빠른 수출 증가와 경제성장을 배경에는 한국 기업의 공격적인 투자가 있었다,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규모는 누적기준 579억 달러로 투자 1위국을 유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대한민국 해외직접 투자금액은 437억 달러를 기록했다. 2017년 GDP 대비 약 2.55% 규모다. OECD 평균과 비교하면 투자여력은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향후 북한 투자가 본격화되면 해외직접 투자규모도 증가할 전망이다. 투자여력 대비 예상되는 북한 직접투자 규모는 연간 약 8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된다.

착공은 시작, 인프라에서 직접 투자로 발전 가능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정상은 이제부터 약속보다 실행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 비핵화, 군사긴장완화 그리고 남북 경제협력에서 의미 있는 시작을 기대하는 이유다. 물론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등 현실적인 벽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남북선언은 시작이 시작되는데 의미가 클 수 있다는 판단이다. **착공이 없으면 어떤 건물이나 도로도 만들어 질 수 없다. 평양공동선언, 희망이 착공되고 있다.**

평양공동선언 – 경제협력, 비핵화, 군사긴장완화

평양공동선언은 평화와 공동번영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선언의 6가지 항목을 보면 첫째, 남과 북은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둘째,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셋째, 이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넷째,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다섯째,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다섯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표 1. 9.19 평양공동선언 주요 내용

중요 선언 (단어)	구분
금년 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 정상화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환경협력 적극 추진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한 노력	남북 경제협력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보건, 의료 분야 협력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	비핵화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 우발적 무력충동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빠른 시일내 개소, 면회소 시설 복구 10월 중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진행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 유치 협력 김정은 위원장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	군사긴장완화

자료: 청와대,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그림 1.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자료: 청와대,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남북경제협력, 가시적인 단계로 돌입

경제 협력 분야에서 의미 있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우선 금년 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동해선(고성-온정리)은 강릉과 제진까지 이어지고 경원선 및 금강산선도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서해안 철도는 경의선(문산-개성)과 향후 고속철도 사업을 위한 기반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도로연결은 파주시 문산읍에서 군사분계선까지 7.8km 구간과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가 연결될 수 있다. 또한 남북 간 국도 6개 가운데 남한 내 단절구간을 잇는 국도 31호선 강원 양구군 군사 분계선 구간 10.5km와 국도 43호선 철원군-군사군계선 구간 2km도 이어질 계획이다.

그림 2. 남북한 철도 연결 노선도



자료: 국민일보,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도 의미 있는 약속이다.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한 서해경제특구와 금강산관광을 포함한 동해관광특구는 남북한 경제협력의 출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남한의 신경제지도와 북한 경제개발구 계획을 공동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는 판단이다. 뿐만 아니라 DMZ를 대표로 한 환경협력도 향후 중요한 남북 경험이 될 전망이다.

평양공동선언에서 특징적인 면은 북한 내부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문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점이다. 바로 산림과 의료분야이다. 북한 산림 황폐화는 심각한 상황이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6년까지 북한 산림의 약 40%가 사라진 것으로 조사된다. 매년 평양 면적에 달하는 11만 2천ha의 산림이 없어진 셈이다. 산림 훼손으로 인한 홍수, 가뭄, 산사태 등 피해는 커져가고 있다. 과거 1995년과 1996년 대홍수로 인해 북한 정권이 위기에 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홍수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다. 2016년에도 대홍수로 인해 500명 이상이 사망했고,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림 3. 2014년 천리안 위성 사진



자료: 한국임업진흥원,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그림 4. 북한 민둥산



자료: 리버티헤럴드,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보건, 의료 분야 협력도 북한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내부문제이다. 세계보건기구(WHO) 2017년 결핵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내 2016년 결핵 환자 수는 13만명으로 2015년보다 2만명 이상이 증가했다.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1만 1천명으로 조사되었다. 결핵뿐만 아니라 장티푸스, 설사병, 뇌수막염 등으로 인한 북한 의료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산림과 의료 분야는 인도적 차원에서도 필요한 협력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와는 별도로 빠른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환경과 보건은 자연의 연관성과 인력 이동을 볼 때 향후 남북한의 공통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분야보다 빠른 진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그림 5. 북한 의료실태 현황



자료: 매일경제, 미래셋대우 리서치센터

남북경제협력, 보완적 관계로 발전

향후 남북한 경제협력의 큰 틀은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보완적 관계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경제협력의 주체 또한 정부에서 민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평양 방문에서도 북한 요청으로 남한 주요 그룹 경영자가 참석한 이유다. 주요 수행원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회장 등이다.

표 2. 평양 남북정상회담 경제인 특별 수행원 (17명)

이름	구분	이름	구분
최태원	SK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이재용	삼성 부회장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협회장
구광모	LG회장	오영식	코레일 사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총재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재용	쏘카 대표
한무경	한국 여성경제인 협회장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자료: 미래셋대우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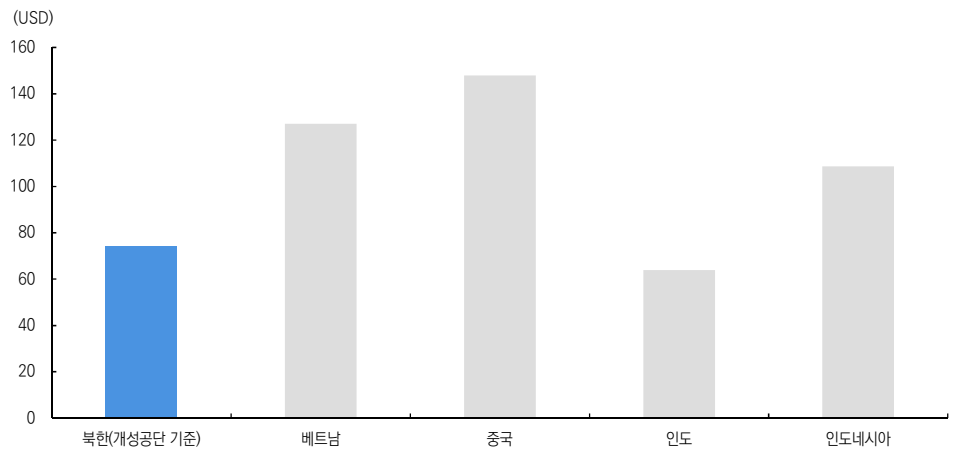
그림 6. 평양 방문 중인 주요 경제인



자료: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민간 입장에서 북한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제조기지로서의 역할이다. 북한 인구는 중국 또는 베트남과 비교하여 적은 수준이나 양질의 노동력 공급이 가능하다. 특히, 고등교육을 이수한 고급 노동 인력도 풍부한 상황이다. 남한 기업 입장에서 북한 노동력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동일한 언어와 문화다. 같은 언어와 문화는 경영활동을 하는데 다른 나라보다 유리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렴한 인건비 또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림 7. 북한 최저임금 수준 비교



자료: 언론자료,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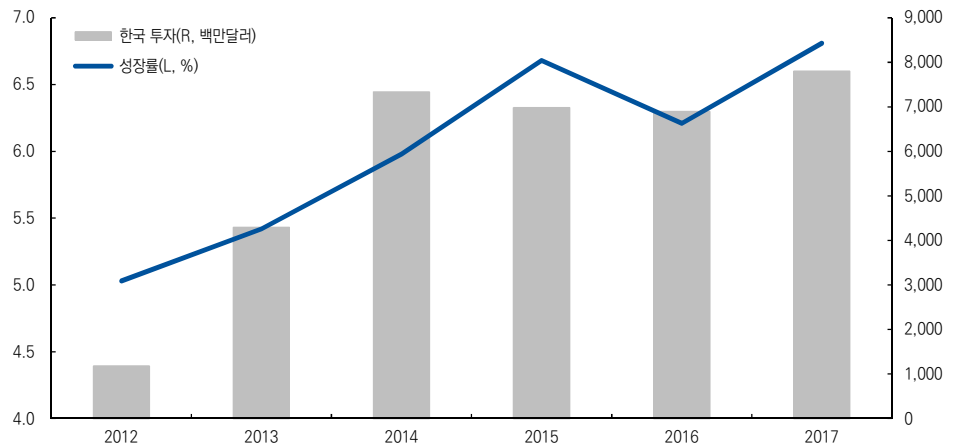
북한의 지리적 위치도 생산기지 역할로서 중요한 장점이 될 수 있다. 북한은 소비지와 연료확보 차원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인접해 있다. 중국, 한국, 일본이 중요한 소비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러시아는 에너지 도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안정적인 노동력과 지리적 이점을 고려하면 생산 기지로서 북한에 민간 투자가 증가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만든 베트남의 성장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본격화되면 남북 경제협력뿐 아니라 북한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한민국 기업투자가 개발 도상국가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는 베트남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기업의 베트남 투자규모는 누적 기준 579억 달러로 투자 1위국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베트남의 빠른 수출과 경제성장률 배경에는 한국 기업의 공격적인 투자가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베트남 업종별 투자 현황을 보면 제조업 72%, 부동산경영 13.9%, 건설 5%, 물류운수 1.7% 등이다. 대 베트남 투자가 초기에 부동산 중심에서 제조업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베트남 제조업에 투자한 한국 기업은 삼성전자, LG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태광, 화승이 대표적이다.

그림 8. 베트남 경제성장률과 한국기업의 베트남 투자현황



자료: 베트남 기획투자부,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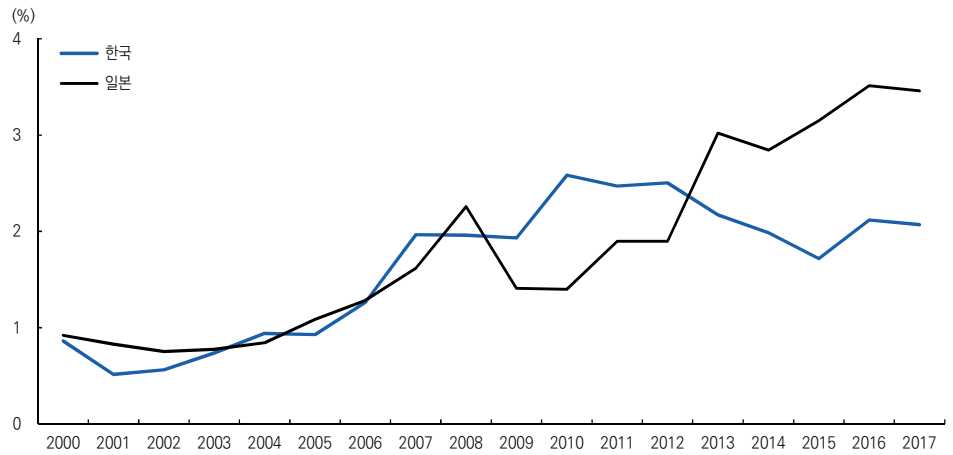
그림 9. 베트남 삼성전자 공장



자료: VietNam News,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금액은 437억 달러이다. 지역별로는 북미 158억 달러, 아시아 123억 달러로 미국과 중국, 베트남 등이 주요 투자 대상국이다. 업종별로는 금융과 보험업이 127억 달러, 도 소매업 96억달러, 제조업 78억달러로 현재까지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한 직접투자 비중이 큰 상황이다. 향후 북한 투자가 본격화되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해외직접 투자규모도 증가할 전망이다. 투자여력 대비 예상되는 북한 직접투자 규모는 연간 약 8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된다.

그림 10. 한국, 일본 해외직접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비교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